

## 5-9절,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실 것이다. 그의 속죄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같이 우리 자신의 뜻대로 그릇된 길로 갔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屠獸場)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메시아께서 괴롭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라는 말은 “그가 괴롭힘을 받고 고난을 당했으나”라는 뜻이다(KJV, NASB, NIV). 메시아께서는 괴롭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는 마치 도수장(屠獸場) 곧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라켈 לַרְקֵל)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들을 들으셨으나 잠잠하셨다. 마태복음 26:63,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8절]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는 말은 “그가 고통과 심문

을 받아 처단되셨다”(NASB) 즉 죽임을 당하셨다는 뜻이다.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고통과 심문을 당하고 처단되셨고 산 자의 땅에서 끊어 지셨다고 말한다. 메시아께서는 공적으로 정죄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이라고 말한다. 그는 말하기를,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라고 한다.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실 것이다. 또 그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실 것이다. 그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일 것이다.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께서는 강포를 행치 않으셨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다. 그러나 그는 예언된 대로 악인과 같이 무덤에 묻히시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 마태복음 27:57, 59-60,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의 속죄적 의미를 알아야 한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적 죽음이라고 밝히 증거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말하였다(요 1:29). 예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요 6:51),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또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포도즙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

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다(마 26:28).

사도 베드로는 “[저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 . . .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했다(벧전 2:24-25). 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죄적 의미를 밝히 증거했다.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義)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에베소서 5:2,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며 그의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밝히 증거하였다.

둘째로, 우리는 메시아의 속죄사역을 감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피밖에 없다. 죄인은 오직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메시아의 속죄사역에 보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억만 분지 일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